

경제주평

- 주요 신흥국 수출환경 점검과 시사점
- 對 신흥국 수출 경기 개선이 중요한 시기

목 차

■ 주요 신흥국 수출환경 점검과 시사점

- 對 신흥국 수출 경기 개선이 중요한 시기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주요 신흥국 수출환경 점검	3
3. 시사점	10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저 자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 경 제 연 구 실 : 이 형 석 연 구 위 원 (2072-6247, walden0230@hri.co.kr)

신 지 영 선임 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선임 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

Executive Summary

□ 주요 신흥국 수출환경 점검과 시사점 - 對 신흥국 수출 경기 개선이 중요한 시기

■ 개 요

최근 국내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수출 경기 전반의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對 신흥국 수출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수출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권별로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 수출 회복 시기 및 정도에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對 선진국 수출은 2023년 9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2024년 1~2월 각각 29.2%, 11.0%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했다. 반면에 對 신흥국 수출 증가율은 2024년 1월에 8.9%를 기록하면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2월에는 다시 -0.3%로 감소해 對 선진국 수출 경기 회복세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더욱이 국내 총수출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57.5%에서 2023년 52.4%로 축소되는 등 향후 국내 수출 경기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에 본 보고서는 거시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주요 신흥국 수출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국내 수출 회복 정도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 본고에서는 對 신흥국 총수출 중 약 69.2%를 차지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 주요 신흥국 수출환경 점검

① 경기

최근까지 신흥국 제조업 경기 회복은 지연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실물 경기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전년동월대비)은 리오프닝 이후 기저효과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경기 여건을 나타내는 S&P 및 Caixin 제조업 PMI 지수가 상반되는 방향성을 보여 중국 제조업 경기는 본격적인 확장 국면에 진입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국을 제외한 주요 신흥국의 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전년동월대비)은 2022년 하반기 이후 둔화되고 있다. 한편, 신흥국의 전반적인 실물 경기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2023년 8%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인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4분기 각각 5.0%, 6.7%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 신흥국 경기는 견조한 노동시장과 각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바탕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여 한국의 수출 여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신흥국의 실업률은 코로나19 이후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견조한 노동시장으로 내수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국은 디플레이션 및 부동산 경기 침

체의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5.0%를 달성하기 위해 이구 환신(以旧换新) 등의 내수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여 4% 중반대의 증속 성장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② 구매력

대부분 신흥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하향 안정화됨에 따라 정책금리 또한 동결 또는 소폭 인하되는 추세로 구매력 회복에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올해 들어 1~2% 후반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이면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인도와 베트남은 4~5%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추세적인 하락세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이들 국가의 정책금리가 동결 또는 소폭이나마 인하되고 있다. 다만, 튀르키예는 60% 이상의 고물가로 정책금리가 50%까지 인상되었다.

다만, 향후 달러화 강세가 완화되면서 주요 신흥국 통화 가치 상승이 기대됨에 따라 이들 국가의 수입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미국의 긴축 통화정책 등으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주요 신흥국의 통화 가치 하락 현상이 심화된 바 있다. 다만, 향후에는 신흥국 경기 회복,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등의 영향으로 튀르키예를 제외한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달러 대비 통화 가치 상승(對 달러화 환율 하락)이 기대된다.

③ 수입 수요

그동안 축소되어 왔던 주요 신흥국 수입 수요는 대부분 국가에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1월까지의 실적을 살펴보면 튀르키예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대부분 주요 신흥국 수입이 감소했다. 중국은 6.1% 감소했으며, 나머지도 인도 9.1%, 베트남 11.3%, 인도네시아 9.6%, 말레이시아 10.3%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한편, 이들 국가의 對 한국 수입 비중은 같은 기간 중국 6.3%, 인도네시아 5.2%, 말레이시아 4.5%, 사우디아라비아 3.0%, 튀르키예 2.7%이지만, 베트남은 16.3%에 이르는데, 중국과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은 물론 인도를 포함한 4개국은 對 한국 수입 비중이 축소된 국가들이다.

다만, 올해 수입 전망을 보면 2023년 0.6%씩 감소했던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2.7%, 5.9%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는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와 말레이시아 및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어서 전반적으로는 국내 수출 경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④ 종합 평가

분석 대상 주요 신흥국에 대한 수출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모든 국가가 국내 수출 경기 회복에 최소한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별 불확실성도 상존한다. 인도와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국내 수출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수입 수요를 제외한 경기 여건과 구매력에서, 인도네시아는 구매력과 수입 수요 측면에서, 베트남은 전 부문에서 국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역시 수입 수요 개선으로 국내 수출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나, 경기 여건과 구매력 부문에서의 불확실성 해소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말레이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구매력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경기와 수입 수요 전망이 다소 불확실하다는 점이 불안 요인이며, 튀르키예는 구매력 개선 기대감이 매우 약한 가운데 경기 여건과 수입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 對 주요 신흥국별 수출환경 종합평가 >

구분	경기 여건	구매력	수입 수요	종합
중국	☁	☁	☀	☁
인도	☀	☀	☁	☀
베트남	☀	☀	☀	☀
인도네시아	☁	☀	☀	☀
말레이시아	☁	☀	☁	☁
튀르키예	☁	☂	☁	☁
사우디아라비아	☁	☀	☁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부문별로 국내 수출 경기 개선에 긍정적이면 ☀, 중립이면 ☁, 부정적이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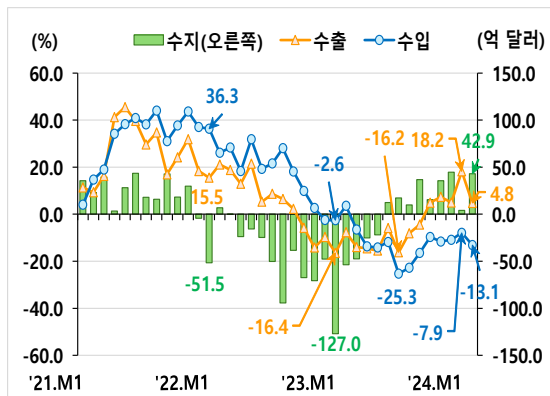
■ 시사점

최근 국내 수출 경기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선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신흥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주요 신흥국별 수출환경이 서로 다른 만큼 각국의 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 유망 분야 발굴 및 적극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수출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중국은 경기 및 구매력 회복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이구환신(以舊換新) 등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활용한 수출 전략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상외교 등 세일즈 외교 성과의 후속조치 강화 등을 통해 실제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반적인 수출 경기 개선 강도 제고를 위한 민간 부문의 대응력 확충도 중요하다.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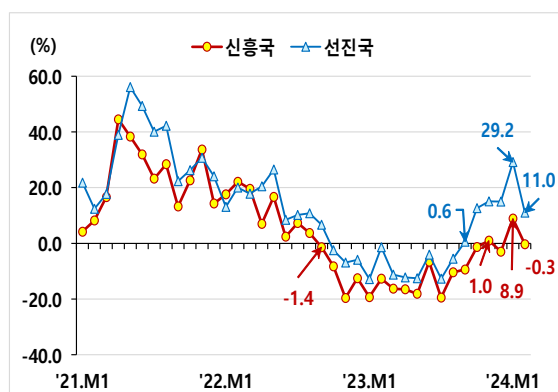
- 최근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수출 경기 전반의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 수출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
- 국내 수출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5개월 연속 증가세, 무역수지는 9개월 연속 흑자
 - 전년동기비 기준 국내 수출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한 후 2023년 10월부터 플러스 전환, 2024년 2월에는 4.8%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
 - 무역수지는 지난 2023년 6월 12.4억 달러로 흑자 전환한 후 2024년 2월 42.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9개월 연속 흑자
- 다만, 경제권별로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 수출 회복 시기 및 정도에서 차별화가 진행
 - 對 선진국 수출은 2023년 9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2024년 1~2월 각각 29.2%, 11.0%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
 - 반면에 對 신흥국 수출 증가율은 2023년 11월 1.0%로 플러스 전환한 뒤 12월에는 다시 -3.0%로 마이너스 전환, 2024년에도 1월에는 8.9%로 플러스 전환되었으나, 2월에는 다시 -0.3%를 기록하는 등 對 선진국 수출 경기 회복세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

< 한국의 월별 수출입 규모 및 증감률 추이 >



자료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한국의 對 신흥국과 對 선진국 수출 증감률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선진국과 신흥국 구분은 IMF의 2014년 분류 기준.

- 국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신흥국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출 경기 회복 강도는 중국 등 주요 신흥국 수출환경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칠 전망
 - 국내 총수출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57.5%에서 2023년 52.4%로 5.1%p 축소
 - 이는 국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기준 각각 25.9%, 9.5%이었던 중국과 인도에 대한 수출 비중이 2023년에 각각 6.1%p, 1.0%p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이에 본 보고서는 거시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주요 신흥국 수출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국내 수출 회복 정도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본고에서는 對 신흥국 총수출 중 약 69.2%를 차지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7개국을 대상으로 분석

< 한국의 지역별·국가별 수출 규모 및 비중 >

구분	2020년		2023년		2020년 대비 변화	
	규모 (억달러)	비중 (%)	규모 (억달러)	비중 (%)	규모 (억달러)	비중 (%p)
총수출	5,125	100.0	6,322	100.0	1,197	-
선진국	2,159	42.1	2,996	47.4	837	5.3
미국	741	14.5	1,157	18.3	416	3.8
일본	251	4.9	290	4.6	39	-0.3
영국	45	0.9	60	0.9	15	0.1
신흥국	2,949	57.5	3,313	52.4	364	-5.1
중국	1,326	25.9	1,248	19.7	-78	-6.1
인도	485	9.5	535	8.5	50	-1.0
베트남	119	2.3	179	2.8	60	0.5
인도네시아	91	1.8	98	1.6	7	-0.2
말레이시아	63	1.2	91	1.4	28	0.2
튀르키예	55	1.1	90	1.4	35	0.4
사우디아라비아	33	0.6	53	0.8	20	0.2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선진국과 신흥국 구분은 IMF의 2014년 분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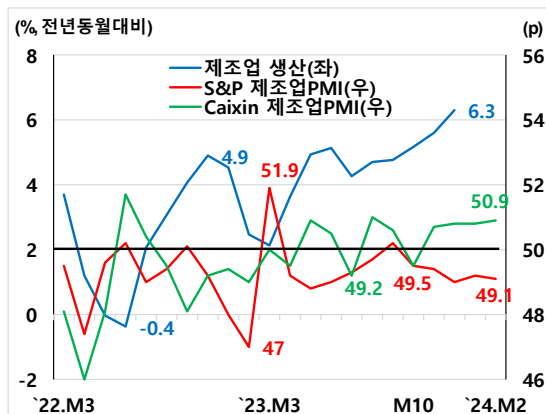
2. 주요 신흥국 수출환경 점검

① 경기

○ 신흥국 제조업 경기 회복은 지연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실물 경기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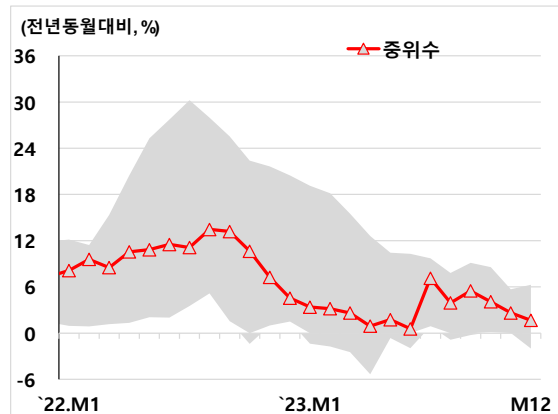
- 중국의 제조업 경기는 본격적인 확장 국면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중국의 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전년동월대비)은 리오프닝 이후 기저효과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상승
 - Caixin 제조업 PMI는 2023년 11월 이후 4개월 연속 기준선(50p)을 상회
 - 반면, S&P 제조업 PMI는 10월 이후 5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
 - 주요 신흥국의 제조업 경기 역시 회복이 지연되는 양상
 - 중국을 제외한 주요 신흥국의 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은 2022년 하반기 이후 둔화되기 시작
 -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은 마이너스(-)를 기록
- ※ 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y.o.y., %): 베트남 -6.5('24.2M), 인도네시아 -1.0('23.12M), 사우디아라비아 -3.3('23.12M)

< 중국의 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및 PMI 지수 추이 >



자료 : Bloomberg.
주 : 제조업 생산은 3개월 이동평균.

< 주요 신흥국 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추이 >



자료 : Bloomberg.
주 : 음영은 최대 최소, 빨간선은 중위수.

- 한편, 최근 신흥국의 전반적인 실물 경기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도는 2023년 8% 수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도 작년 4분기 각각 전년동기대비 5.0%, 6.7%의 양호한 성장세
 - 튀르키예와 말레이시아의 경기도 작년 하반기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
 - ※ 경제성장률(q.o.q., %): 튀르키예 '23.3Q 0.3, 4Q 1.0, 말레이시아 3Q 5.2, 4Q 3.1
- 2024년 신흥국 경기는 견조한 노동시장과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양호한 경기 흐름을 보이면서 한국 수출 여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올해 주요 신흥국은 견조한 노동시장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
 - 인도의 실업률은 3.2%('22/'23 회계기준)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0.9%p 하락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실업률(2023.8월 기준)도 0.6%p 하락한 5.3%를 기록
 -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실업률은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각각 3.3%('24.1M), 2.26%('23.4Q)를 기록
 - 튀르키예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최근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하락
 - ※ 실업률(%): 튀르키예 '23.1M 10.4 → '24.1M 9.8, 사우디아라비아 '22.3Q 5.8 → '23.3Q 5.1
- 또한, 중국은 디플레이션 및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가 우려되나, 정부 주도 성장에 힘입어 4% 중반대의 중속 성장은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는 2022년 10월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경기지수는 2023년 12월 기준 역대 최저치(93.4p)를 기록
 -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24.3.5)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5.0%를 달성하기 위해 이구환신(以旧换新) 등의 내수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¹⁾

< 주요 신흥국 경기 흐름 및 경제성장률 전망(%)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F)	
		1/4	2/4	3/4	4/4		
중국	3.0	4.5	6.3	4.9	5.2	5.2	4.6
인도	7.0	8.2	8.1	8.4	-	-	6.5
베트남	8.0	3.3	4.1	5.3	6.7	5.1	5.8
인도네시아	5.3	5.0	5.2	4.9	5.0	5.1	5.0
말레이시아	8.7	5.6	2.9	3.3	3.0	3.7	4.3
튀르키예	5.7	4.0	3.9	6.1	4.0	4.5	3.1
사우디아라비아	7.6	3.2	1.7	-3.2	-4.3	-0.8	2.7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3.10, '24.1), Bloomberg, Government of India.

주 : 인도는 회계연도 기준. 연간 수치는 당해 2분기부터 이듬해 1분기까지임.

1) 중국 국무원('24.3.13)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오래된 설비 및 제품을 교체하도록 장려하고 자금을 지원할 예정. 27년까지 공업·농업·건설 영역의 설비 투자를 전년 대비 25% 확대 유도할 계획.

② 구매력

○ 대부분 신흥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향 안정화됨에 따라 정책금리 또한 동결 또는 소폭 인하되는 추세

- 대부분 신흥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중 고점을 기록한 이후 둔화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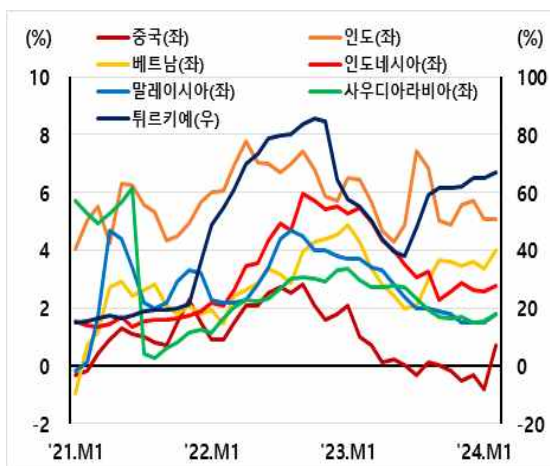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는 2024년 2월 각각 2.8%, 1.8%, 1.8%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감
- 인도 및 베트남의 소비자물가는 2023년 하반기 반등한 후 다시 둔화하며 2024년 2월 각각 5.1%, 4.0% 상승
- 한편,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 2월 0.7%로 2023년 8월 이후 6개월 만에 상승 전환²⁾

- 이처럼 신흥국의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정책금리 또한 동결 또는 소폭 인하되는 흐름

- 반면, 튀르키예의 소비자물가는 4개월 연속 상승하며 2024년 2월에는 67.1%의 상승률을 기록

- 튀르키예의 소비자물가가 60%대의 상승률을 기록함에 따라 정책금리는 지난 3월 21일 50.0%까지 인상

< 주요 신흥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



자료 : Bloomberg.
주 : 전년동월대비 기준.

< 주요 신흥국 정책금리 >

(단위: %)

구분	'19	'20	'21	'22	'23
중국	4.15	3.85	3.80	3.65	3.45
인도	5.15	4.00	4.00	6.25	6.50
베트남	6.00	4.00	4.00	6.00	4.50
인도네시아	5.00	3.75	3.50	5.50	6.00
말레이시아	3.00	1.75	1.75	2.75	3.00
튀르키예	12.0	17.0	14.0	9.00	42.5
사우디아라비아	2.25	1.00	1.00	5.00	6.00

자료 : Bloomberg.
주 : 기말 기준.

2) 다만, 춘절 연휴에 따른 일시적 요인일 가능성이 크며 다시 하락 전환할 우려.

○ 달러화 강세가 완화되면서 주요 신흥국 통화 가치는 상승할 전망

- 2023년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미국의 긴축 통화정책 등으로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며 주요 신흥국 對 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유지
 - 2023년 평균 달러 인덱스³⁾는 103.4p로 강달러가 지속됨에 따라 신흥국의 통화 가치는 하락
 - 특히, 아시아 통화의 경우 중국 경기 부진의 여파로 약세를 보임
- 2024년에는 신흥국의 경기 회복,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등의 영향으로 신흥국의 통화 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
 - 2024년 중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이 기대되는바 달러 강세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신흥국 경기의 회복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주요 신흥국 對 달러 환율은 하락(신흥국의 통화 가치 상승)할 전망
- 반면, 튀르키예 리라/달러 환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외환보유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리라화 가치는 하락할 전망

< 주요 신흥국 對 달러 환율 >

구분	2023년				2024년			
	Q1	Q2	Q3	Q4	Q1	Q2	Q3	Q4
중국 위안/달러	6.87	7.25	7.30	7.10	7.19	7.15	7.10	7.06
인도 루피/달러	82.18	82.04	83.04	83.21	83.00	82.75	82.50	82.00
베트남 동/달러	23,471	23,583	24,305	24,269	24,350	24,475	24,250	24,100
인도네시아 루피아/달러	14,996	15,066	15,460	15,399	15,629	15,500	15,335	15,325
말레이시아 링깃/달러	4.42	4.67	4.70	4.59	4.66	4.70	4.65	4.60
튀르키예 리라/달러	19.18	26.01	27.42	29.53	31.54	32.50	33.05	34.75
사우디아라비아 리알/달러 ⁴⁾	3.75	3.75	3.75	3.75	3.75	3.75	3.75	3.75

자료 : Bloomberg.

주1) 기말 기준

2) 전망 시점은 2024년 3월.

3) 100p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락)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락)했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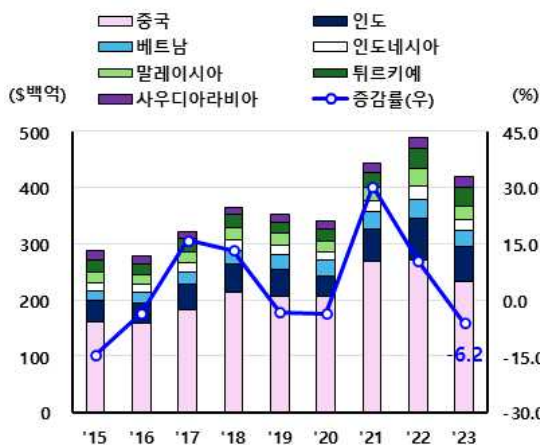
4) 사우디아라비아는 달러 페그제(미국 달러에 자국 통화 가치를 고정하는 고정환율제도)를 택하고 있음.

③ 수입 수요

○ 주요 신흥국의 對 세계 수입액이 둔화된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수입 상위 3개국으로부터 수입 수요의 대부분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대부분 주요 신흥국의 수입은 감소
 - 주요 신흥국의 2023년(1~11월 누계 기준) 對 세계 수입액은 총 4조 1,958억 달러로 전년 대비 -6.2% 감소
 - 국가별 수입 규모는 중국이 2조 3,353억 달러로 가장 컸으며, 인도(6,107억 달러), 튀르키예(3,327억 달러), 베트남(2,875억 달러), 등의 순이었음
 - 한편, 2023년 수입 증감률(전년대비)은 중국(-6.1%), 인도(-9.1%), 베트남(-11.3%), 인도네시아(-9.6%), 말레이시아(-10.3%) 등 대부분에서 감소를 기록
- 주요 신흥국은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수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상위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총수입액 대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수입 1위 대상국은 중국이며, 베트남(33.3%), 인도네시아(24.4%), 말레이시아(21.3%)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특히 높은 수준
 - 상위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중국이 20.7%로 작았으나, 인도네시아(40.9%), 말레이시아(40.5%), 베트남(56.6%) 등은 과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

< 주요 신흥국 수입 증감률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23년은 1~11월 누적 기준이며, 증감률도 '22년 1~11월 누적 대비 기준임.

< 주요 신흥국의 수입 상위국 >

구분	1위	2위	3위
중국	대만 (7.8)	미국 (6.5)	한국 (6.3)
인도	중국 (14.8)	러시아 (9.3)	UAE (6.6)
베트남	중국 (33.3)	한국 (16.3)	일본 (7.0)
인도네시아	중국 (24.4)	싱가포르 (8.8)	일본 (7.8)
말레이시아	중국 (21.3)	싱가포르 (11.9)	미국 (7.3)
튀르키예	중국 (12.5)	러시아 (12.4)	독일 (7.9)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20.7)	미국 (9.4)	UAE (6.3)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23년 1~11월 누적 기준이며, 괄호는 국별 총수입액 대비 해당국 비중.

○ 주요 신흥국의 對 한국 수입 비중은 5% 내외의 미미한 수준으로, 대부분에서 그 비중 또한 축소된 가운데 특히 중국에서의 둔화 폭이 크게 나타남

- 2023년 주요 신흥국의 총수입액 대비 對 한국 수입액 비중은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5% 내외 수준이며, 최근 그 비중이 축소

· 對 한국 수입액 비중은 베트남이 16.3%이나, 튀르키예(2.7%), 사우디아라비아(3.0%), 인도(3.2%), 말레이시아(4.5%) 등 대부분 미약한 수준에 그침

· 또한, 주요 신흥국 대부분에서 2023년 對 한국 수입 비중이 2020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중국의 경우 약 2.1%p 감소하며 가장 크게 둔화

< 주요 신흥국의 對 한국 수입 비중 변화 >

구분	2020년		2023년		2020년 대비 변화 비중(%p)
	규모 (억달러)	비중 (%)	규모 (억달러)	비중 (%)	
중국	1,735	8.4	1,481	6.3	-2.1
인도	122	3.3	196	3.2	-0.1
베트남	469	16.9	467	16.3	-0.6
인도네시아	68	4.8	102	5.2	0.4
말레이시아	107	5.6	110	4.5	-1.1
튀르키예	57	2.6	88	2.7	0.1
사우디아라비아	39	2.9	56	3.0	0.1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비중은 국별 총수입액 대비 대한국 수입액 비중이며, 2023년은 1~11월 누계 기준.

○ 한편, 2024년 주요 신흥국의 수입 증가율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의 수출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주요 신흥국의 수입 증가율 전망(%) >

구분	2022년	2023년(E)	2024년(F)
중국	-5.0	-0.6	2.7
인도	10.1	2.5	6.0
베트남	3.0	-0.6	5.9
인도네시아	9.6	4.1	14.0
말레이시아	16.6	4.3	2.1
튀르키예	12.4	20.7	10.0
사우디아라비아	11.2	8.7	4.6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3년 10월.

주 : 수입 증가율은 상품 및 서비스 기준.

④ 종합 평가

- 분석 대상 주요 신흥국에 대한 수출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모든 국가들이 국내 수출 경기 회복에 최소한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별 불확실성도 상존
 -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국내 수출 경기에 긍정적
 - 인도는 수입 수요를 제외한 경기 여건과 구매력, 인도네시아는 구매력과 수입 수요, 베트남은 전 부문에서 국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중국은 수입 수요 개선으로 국내 수출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나, 경기 여건과 구매력 부문에서의 불확실성이 상존
 - 말레이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구매력 개선이 국내 수출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나, 경기 여건과 수입 수요 전망이 다소 불확실하다는 점이 불안 요인
 - 튀르키예의 경우, 구매력 개선 기대감이 매우 약한 가운데 경기 여건과 수입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 對 주요 신흥국별 수출환경 종합평가 >

구분	경기 여건	구매력	수입 수요	종합
중국	☁	☁	☀	☁
인도	☀	☀	☁	☀
베트남	☀	☀	☀	☀
인도네시아	☁	☀	☀	☀
말레이시아	☁	☀	☁	☁
튀르키예	☁	☂	☁	☁
사우디아라비아	☁	☀	☁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부문별로 국내 수출 경기 개선에 긍정적이면 ☀, 중립이면 ☁, 부정적이면 ☂로 표시.

4. 시사점

- 최근 국내 수출 경기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선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신흥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첫째, 주요 신흥국별 수출환경이 서로 다른 만큼 각국의 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 유망 분야 발굴 및 적극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수출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함

둘째, 중국은 경기 및 구매력 회복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이구환신(以舊換新) 등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활용한 수출 전략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국 국무원이 넓은 대규모 설비 및 소비재에 대한 신제품 교체 정책의 행동 방안을 발표, 설비교체, 소비재 이구환신, 회수 및 재활용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내수 진작에 나서고 있음
- 이에 따라 소비재 교체와 관련 자동차는 물론 가전 등의 내구소비재 부문에 대한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만큼 이를 기회 요인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정상외교 등 세일즈 외교 성과의 후속조치 강화 등을 통해 실제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의 대규모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나 계약 등이 체결된 만큼 이의 조기 실현을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
- 세일즈 외교가 경제와 산업뿐 아니라 외교와 국방 안보 기반을 확충하는 수단으로 동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

넷째, 전반적인 수출 경기 개선 강도 제고를 위한 민간 부문의 대응력 확충도
중요함

- 전쟁 장기화, 미·중 갈등, 불안정한 글로벌 원자재 가격 및 공급망, 자국우선주의 기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다양한 대외 리스크로 인해 국내 수출 경기 개선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따라서, 자금 여력이 취약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시장 진출 및 금융, 세계 등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수출 시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HRI**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이 형 석 연 구 위 원 (2072-6247, walden0230@hri.co.kr)
신 지 영 선 임 연 구 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선 임 연 구 원 (2072-6248, syroh@hri.co.kr)